

<2021년 4월 18일 주일말씀>

어리다고, 꾸짖고 막고 책망하지 말아라

본 문 누가복음 18장 15~17절

누가복음 15장 11~24절

참고성구 누가복음 15장 25~32절

<말씀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황금천국을 사는 방법에 대해 깊이 말씀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황금천국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어린 중고등부들과 신앙이 어린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다 모여 들어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각종 도움도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못 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어린아이는 물러가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각이 달

랐습니다. 못 막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좋아하며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아, 내게 가까이 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하는 것을 왜 법과 같이 금하느냐. 하늘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곳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왜 어린아이같은 자들만 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참 순수하고 착합니다. 순수하게 좋아하고 따르고 우러러보고 사랑하며 대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표상으로 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과 청년들 모두 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강하고 무지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순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대하는데 있어서 착하게 대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주님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선생님도 사명으로 말할 거 같으면 하늘까지 닿지만 놀라지 않았습시다. 동네사람들도 한결

같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순수하고 착한 선생님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선생님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같이 착한 마음, 천사 같은 성품과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어린 자들 있습니다. 어떤 자가 어린 자녀. 주를 막 알고 처음 신앙하는 자들도 어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께 기뻐하며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대 황금천국은 어린아이같은 성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이 아니고서는 결코 황금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르죠. 여러분은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어릴 때를 다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겪었으면서 지난날을 잊고서 어린아이들과 신앙의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책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주를 통해 책망하시면서 저렇게 순수하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나 섭리에서나 유초등부, 중고등부같이 어린 자들이 할 때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어린 자들이 좋아하며 행하는데 그 같이 어린 신앙 취급하며 대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첫 신앙, 첫 사랑을 하는 자들이라 정말 순수하고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서 합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을 싹 뜯어고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들은 섭리의 어린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도 형제도, 교회 지도자들도, 어른들도 윗사람들도

무시하고 대하고 그렇게 스쳐지나가듯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두 고쳐야 합니다. 정말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길 이제 어린 자들을 어리다고 꾸짖고 막고 책망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들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 어리다고 꾸짖고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도 이들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 모두 오늘 말씀을 절대 명심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품과 생각으로 주를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황금천국은 순수하고 온유하고 착한 마음을 기본으로 삼고 사는 자가 들어갑니다. 섭리사의 지난날들을 보면 신앙을 오래한 선배들이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들, 첫 신앙을 하는 자들을 막고 꾸짖으며 말을 함부로 하고 강하게 대해서 상처 받아 교회를 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킨 자들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 행해야겠습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하는 자들은 어리다고 막고 꾸짖고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대해주었듯이 어린아이에게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탕자같이 집을 떠나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섭리에 보면 돌아오는 탕자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으면 정말 잘 대해줘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잘 대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돌아왔는데 잘 안 대해주면 적응을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섭리 안에서 보니까 섭리 밖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흔해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면목이 없어 하는 마음, 많고 많은 난관을 부딪히면서 온 자들인데 우리가 잘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면목이 없어서 제가 감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 품꾼이라도 시켜달라 했지만 면에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키고 그렇게 감격하고 좋아하며 보냈습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섭리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을 받습니다. 누가 이제 섭리를 나갔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노정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보내온 사진들을 붙여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포기치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년 뒤 어느날 인터넷 순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였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치 않고 3년을 기도했다. 이 역사 변치말고 가자. 하나님, 성령님 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기가 걸어온 섭리길을 되돌아보면 섭리를 나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처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속은 모르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주가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이 어린 자들, 잘 모르지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을 강하게 막고

꾸짖지 말고 용서로 대해주어라 했습니다. 아멘하며 결심하는 모두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이같이 행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잘 모릅니다. 정말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상처받고 충격받을 얘기를 해도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주께 오는 생명들이 성령이 감동시켜서 행하는 것을 막지도 말고 꾸짖지도 말아야 합니다. 꾸준히 관리해주면서 관리를 잘 하면 신앙의 든든한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본인 자신이 포기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대해줘야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그런 자들을 붙잡아주고 사명자로서 다 내려놓고 끝까지 대해주고 긍정적으로 보고 대하니 나중에 큰 자도자가 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그것을 굳건하게 행하고 이 역사를 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첫 신앙이 들어간 자들을 잘 대하면서 충분히 하기 바랍니다. 황금기간을 놓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지도자들 모두 세밀하게 돌아보고 즉시 교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를 놓지면 황금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떠돌이가 되거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첫 신앙을 하는 자들을 철저한 관리로 대해서 잘 대해주고 행하라며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고등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섬리인들 전체가 큰 불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아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할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자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입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꼭 실천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어린 자들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하기를 원하실까.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꾸짖지 말고 가르쳐주면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들, 중고등부 교사들 가르치면서 무시하지 말고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것은 바르게 가르쳐주고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때니까 사랑으로 잘 대해줘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주고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관리해줘라. 우리가 바빠서가 아니라 말씀을 잊고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들 말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해야 합니다. 순리로 순수하게 하며 다정하게 화평하게 대해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야 교회마다 생명들을 잘 기르게 되고 화평하게 되어 성전마다 빈 곳을 채우는 곳입니다. 중고등부를 전도하는 것이 캠퍼스, 청년부, 장년부를 전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섭리를 떠나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강하게 대해서 혹은 가정에서 어리다고 부모가 꾸짖고 하는 것마다 막고 그러고도 몰라요. 내가 옳은 말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모두 부모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아서 못 헤어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도 이와 같은 현실을 확인했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섭리사 나간 자들의 70% 정도는 말씀을 부인하거나 선생님을 부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치여서 상처받아서 나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의 몸이 되어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나를 어

떻게 아신다고 하셔. 그래.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하면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0%는 말씀을 부인해서, 선생님의 사명을 부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성죄도 많이 지었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다. 앞으로 더 잘하면 괜찮다. 와서 잘하면 되지. 우리도 부족하지. 와서 다시 잘하자 그러면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더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들에게 전화하시면서 무릎을 당하시면서도 우리가 온 거예요. 그 어린 자들을 어린자 취급하지 않고 이 섭리길을 온 것이지 우리의 심정으로 판단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로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린 자들에게 상처준 것이 없는지 회개해야겠습니다. 각 오와 결심을 하고 그럴때마다 알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귀한 생명들, 안타까운 생명들이 어떤 생명입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지옥같은 고통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살리겠다고 하고 살리신 생명들입니다. 주의 몸부림이 허사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순수하고 모든 어린 자들을 환영하고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자들은 같은 말을 해도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그것가지고 그렇게 충격을 받아? 작은 차와 큰 차가 부딪히면 큰 차는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렇지만 작은 차는 완전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말을 강하게 하고 행동을 강하게 하는 자들은 습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휴거되어서 황금천국까지 가는데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겐 막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주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섬리인들은 모두 착하죠. 그런데 자기 습관으로 순간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돌이켜야겠습니다. 주님도 중고등부 나이 때, 첫 신앙을 할 때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구원의 사명을 하도록 잘 키워주셨습니다. 조은 목사님도 중고등부 나이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서 잘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셔서 오늘날 같이 엄청난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섬리의 많은 지도자들도 중고등부 때 와서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어릴 때를 다 지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9살 때 섬리를 만나서 20살 수료할 때까지 정말 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불붙고 주를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 선배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섬리길 가다가 죽어서 영계 갔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너보고 이단에 빠져서 내 심정을 아프게 했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많은 지도자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한결 같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천진하고 세상 어떤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대면하는 거조차 힘듭니다. 예수님의 행함이 지금 재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격과 행함에 놀라고 과연 그럴까 진짜 놀랍니다.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그런 정신과 행함을 받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꾸짖고 막고 책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행하고 어린 자들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깨달았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충만히 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